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복녀 김연이 올리아나: 궁녀들의 목주신공 (탁희성 비오 작)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제4회 한국청년대회 이웃사랑 체험 부스 운영

8월 14일(화) 올림픽 공원에서 제4회 한국청년대회 이웃사랑 체험 부스 운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기관들의 활동을 소개 및 체험하는 시간으로, 그 중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에서는 활동사진과 수용자들의 편지 및 작품으로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체험 부스를 통하여 앞으로 범죄 뉴스를 접하더라도 이전처럼 쉽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인문학 교육

8월 20일(월)~28일(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 아시아교정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기 결정과 선택능력 향상을 목표로, 인문학 교육, 심리치료, 영화치료 등 다양한 방법과 여러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 부임

8월 17일(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김도훈 라파엘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 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새로 오신 신부님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김도훈 신부는 “교정 사목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영성피정 및 월레미사

9월 3일(월)에 가톨릭회관 2층에서 월레미사에 앞서 피정이 있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후원 회원으로서 순교자의 순교 정신에 따라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예전의 순교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요즘의 순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며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편 가르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와 성체 강복 후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레미사가 있었습니다. 김도훈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며 “편견과 선입견에 갇힌 나를 없애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축일을 맞이한 김도훈 신부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의 대표봉사자들과 모두가 축가를 부르며 은총이 가득했던 월레미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모님의 순명

김도훈 라파엘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찬미 예수님

저는 올해 8월에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도훈 라파엘 신부입니다. 모든 후원회원들과 그 가정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빌며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이곳 ‘빛의 사람들’로 오기 전에 군종교구에서 군종신부로서 사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종이라든지 교정이라는 이름이 별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만 접하면 좀 험악한 듯하고 쉽지 않은 험지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게 너는 군대에서 고생하더니 이제는 또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하느님한테 죄지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사실 죄를 많이 짓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군종 신부로 살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마도 이제 교정에서 사는 시간은 제게 또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반만 차 있는 물컵을 보고도 ‘반이나 차 있다.’고 하는 것과 ‘반 밖에 안 남았다.’고 울상 짓는 반응이 좋은 예이겠지요. 주어진 것에 대한 받아들임,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너그러운 받아들임과 순명은 우리 삶에 중요한 행복 열쇠입니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가 그곳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이 은총은 다행히도 우리 노력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을 묵주기도성월로 정하고 매일 아침저녁 묵주 알을 정성스럽게 굴리며 성모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구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닮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모님은 순명의 참 표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잉태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어린 나이 가출한 예수의 황당한 변명, 또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일터를 박차고 집을 나간 후 전교 활동을 하는 곳에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며 대못을 박지를 았나, 눈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피와 물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성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곰곰이 생각하며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본인의 뜻대로였다면 어떻게든 본인 생각대로 막아서고 혼내고 싸우고 했을 테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느님께 참으로 겸손하게 순명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자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느님께 순명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고 따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일도 더 잘 보이고 행복도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삼선동에서 기도합니다. ㅊ



사라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라는 ‘다스리다’는 의미이며, 귀족 여성 혹은 여왕을 뜻합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세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창세 16,2)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첫 말입니다. 언뜻 보면 참으로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말 같아 보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면서, 하느님께 복을 받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 12,2). 그 뒤, 하느님께서 다시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 15,3). 하지만 사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포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축복이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 아들을 낳은 때가 86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십여 년을 사라는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는 그 하느님의 계획과 축복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라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시도합니다. 어느 학자는 아담과 하와와 비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다’(창세 3,6)라는 두 동사가, 사라가 하가르를 ‘가져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창세 16,3)에 쓰인 동사와 서로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창세 3,17)는 표현이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창세 16,2)는 표현이 같습니다. 결국 사라 역시, 낙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적 욕심으로 선악과를 취하는 잘못을 범한 하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내 뜻을 성취하려는 조급함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내 여종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낯선 길을 떠나며, 이집트에서의 그 치욕을 겪으면서도 서로 불목

함이 없던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라는 남편의 탓이라고 원망합니다. 거기에 하느님까지 나를 버린 듯 보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셨으면!”(창세 16,5)

별은 하느님이 내리시는 것이라기보다, 인간 스스로의 잘못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과 그리고 동반자와 배려하며 함께 이루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이루려는 그 잘못은 결국 서로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하느님은 바로 잡아주십니다. 도망간 하가르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도록 합니다(창세 16,9). 또한 당신 축복의 말씀을 더욱 똑똑하게 알려줍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듭거듭 밝히십니다(창세 17,16; 17,19; 18,10; 18,14).

하느님은 굵은 자로도 직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사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엉망으로 만들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주시기로 한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절망뿐이라며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그리고 망쳤다면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 15)

김양순 데레사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교리봉사자

나는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와 결혼하기 위해 세례와 견진을 받았다. 상봉동 본당 신자 시절 보좌 신부님이 이영우 신부님이셨는데 교정에서 다시 뵈게 되었다. 신부님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라는 말씀 하나만은 지킨 것이라고 하셨다. 98년에 성경공부를 시작해서 봉사를 하다가 교리신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졸업 후 선교사와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으면서 군 종선교사로서 전방 교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신학원 동기가 같이 교리를 하자고 해서 교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6년 9월부터 영등포구치소(현 남부구치소) 남사에서 교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대 중반에 춘천에 살고 있을 때 교도소 근처를 지난 적이 있는데, 푸른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을 처음 보았다. 머리를 삭발하고 교도관 인솔 하에 교도소 담장 옆을 청소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었는데 그 때는 그분들의 눈빛이 무서웠다. 20대 중반에 뇌리에 박힌 수용자들은 눈빛이 무서웠던 기억뿐이었다. 60대 중반에 교리를 하러 영등포구치소(현 남부구치소)를 처음 갔을 때 내가 가졌던 선입견이 잘 못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본 형제들은 삭발도 아니었고 눈빛이 무섭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그냥 우리 옆집 청년, 아저씨, 내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고, 수의는 맞는데 두발이 자유로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진 생각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찌어찌 하다가 범법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리를 하는 중에 만났던 기억에 남는 형제님들이 있다. 교리 중에 마르코 복음서를 필사하도록 하는데, 어느 형제님이 마약을 했는데 운동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성경을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런 분이 자기 가장 재미있는 것이 마약 애기와 TV를 보는 것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쓰고 있노라면 성경이 재미가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 교리를 들으러 나올 때는 아는 사람이 어디가냐고 물을 때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쓰면서는 어디 가느냐는 말을 들으면 당당히 나 천주교 교리 받으러 간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 제품을 누군가가 좋다고 하면 가지라고 한다며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을 했다.

또 다른 분은 혼인 성사를 할 때 부인이 신자여서 신부님이 천주교 신자가 되겠느냐고 물으실 때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잘 되던 사업이 기울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신자 분이 묵주와 9일기도 책을 주어 그것을 읽어가면서 묵주 알을 돌렸는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통신교리를 신청해서 하다가 교리 반에 나오셨다고 했다. 형제님은 세례 받을 때 울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정화의 눈물이니까 울어도 된다고 했는데, 미사시간에 계속 세례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하느님을 말씀을 접하고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면서 교리를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 13년째 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느 곳에서라도 교리를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하신 말씀을 따를 것이다. ■



19기 교육생들의 개업을 축하합니다



박OO님의 편의점 창업



허OO님의 의류매장 창업



송OO님의 요식업 창업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교육을 마치고 대출을 받아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며 꿈꾸던 창업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기에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창업을 준비하고 이루어낸 대출자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대출자분들을 응원하는 기쁨과희망은행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창업대출을 받지 못한 교육생들이 창업을 꿈꾸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쁨과희망은행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의 후원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됩니다.

• 우리 1005-301-263350 • 신한 140-008-146888 • 국민 512637-01-001051

예금주:(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랑의 인문학’을 마치고...

김미옥 / 심리치료 전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첫날 교실 안, 수업 시작을 알리는 직원의 목소리에 잔뜩 찌푸린 표정과 ‘피곤해요’라는 메시지를 극도로 전달하는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수업에 계속 방해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찰나만큼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걱정 대신 조금 더 개방적 집단으로 진행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밤 자기 소개시간에 학생들이 써 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검색하고 들었다. 그들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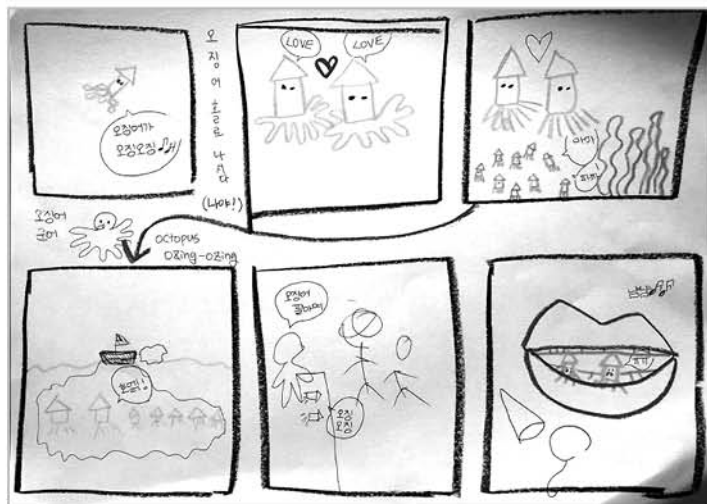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5일간 한 배를 탔어요. 상상하는 거야. 자 여기 모인 우리끼리만 멋진 섬으로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럼, 이 배가 저 섬까지 가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고 함께 규칙을 정하고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고 또 새로 세우는 과정을 5일 동안 반복하였다. 집단에 있어 규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회기 중에 수정의 과정도 허용되기는 하나 그 역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인 셈이다.

감정 카드 퀴즈를 활용한 비폭력대화법 수업 중 한 학생이 재미가 지나쳐 순간 욕설을 내뱉고는 바로 “아, 미안, 미안!”이라며 규칙을 어긴 자신을 알아차리고 바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 행동의 모방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심리치료 집단활동은 하루 교육 중 점심식사 후 진행되었다. 잠깐의 휴식이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그 시간은 나조차 나쁜 시간일 수 있으니 학생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무엇으로도 극복하고 싶다.

팔씨름, 물병 세우기, 만화왕, 스포츠퀴즈, 음악퀴즈 등 게임 활동은 그들의 순수시대와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다. 해시태그(#, hash tags, SNS 등에서 특정 주제를 묶을 때 사용, 관심단어)뿐 아니라 이 짧은 게임 활동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문화와 언어, 관심사는 있었고 그것에 집중해 주었더니 이내 살아났다. 팀 구호를 외치는 우렁찬 데시벨만큼 그들은 응집했고 자연스럽게 정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 보았다.



<6컷 만화그리기>

3일 차 준비된 ‘성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 친밀감을 높인 후라 자기 개방이 조금은 수월하였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이성 교제에 대한 생각과 경험, 고민거리 등의 질문을 던져주고 답을 하도록 하는 참여형 수업이었다. 처음엔 “이런 거까지 말해야 해요”라며 당황해하고 낯설어하던 학생들도 점차 성적 자기결정권, 책임 등의 주제를 받아들였고 또한 진지하였다. 이어서 포스터 그리기와 이성 교제 예절 정하기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어서 감사하였다. 학생들은 게임 다음으로 재미있었던 수업시간이라고 기억해 주었다. ■



고맙습니다. 현대일 신부님

무더위 폭염도 8.15 광복절이 지나가고 난 후 조석으론 많이 기온이 내려가서 거실에서 생활하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영치금 잔액이 없는 줄도 몰랐는데 교정사목에서 영치금을 넣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가족 접견 한번 없었고, 국선 변호사님 외에는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칠순, 고령의 나이가 되는데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도 없고, 하루빨리 출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을 것을 굳은 결심과 각오로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일 신부님!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연일 좋은 날만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2018. 8. 22.

원00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께서 현대일 신부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편지 1

여름의 폭염 속에
단련된 시간
잘 익은 나의 인내로
가을을 기다렸어요

서늘한 바람 안고
하늘을 보면
너무 기뻐서
가슴에 통증이 일고
기침이 나요

당신과 함께
또 한 번의
가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음이 순해지는 이 가을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죠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날리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도
용서해야지요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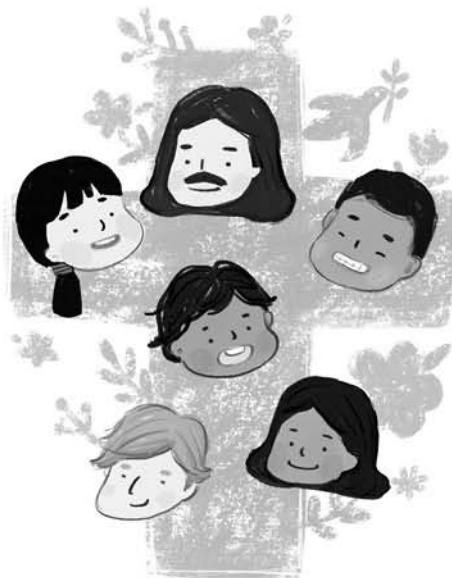
마음의 달

(9)

양상우
도로테아

『살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2018년 전교주일 대화 중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합의한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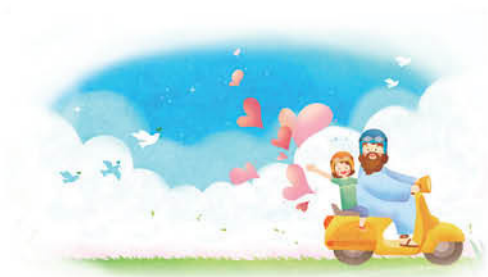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8년 11월 광탄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1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 * 장소 : 가톨릭회관 후문에서 출발 (광탄 나자렛 묘원)
- * 회비 : 10,000원 (점심식사 제공)
- * 접수 : 10월 26일(금)까지 * 준비물 : 편한 옷과 신발

* 11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8/11~9/10)

8월~9월에는 **이은주 안나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알림

- 10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월 3일(수) 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피정 / 노틀담 교육관
- 10월 12일(금) 사회사목국 직원 야유회 / DMZ(비무장지대) 평화열차
- 10월 13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0월 15일(월)~19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 10월 22일(월)~2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20기 창업 교육 / 교정사목 센터
- 10월 22일(월)~31일(금) 서울남부구치소 3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9월 7일(금)~11월 30일(금) 제20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